

2018 기획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배은주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진

배은주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032-260-2678 | bej@idi.re.kr

| 열람방법

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연구원 자료실, 홈페이지(www.ii.re.kr)

연구요약

I.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인천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여 향후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인천 시민 중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자치구 내 거주자 1,0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 본 연구는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인천시 전체 지역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거주지별 인구비례할당 임의표집과 거주지별 성(性)과 연령을 통제한 층화임의표집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대표성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며, 인천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로 비교분석 대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의 현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또한 있음.

II. 다문화수용성의 개념과 정책 개요

❖ 다문화수용성 개념

-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갖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를 말함(안상수 외, 2012 : 48).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에서의 다문화수용성은 안상수 외(2012)가 규정한 대로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다른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인종, 국가 등)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상호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설정(공존의 방향)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며,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태도'를 말함.

❖ 중앙정부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개요

- 중앙정부가 다문화수용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음.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임.
- 정책 초기에는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공무원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이 이루어졌음.
 - 사회교육 차원의 다문화이해교육은 2008년부터 강의, 공연,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을 통해 관련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됨. 다문화축제를 개선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이해교육 인력 양성사업,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다문화가족어울림 생활체육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청소년층의 다문화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 학교교육 차원의 다문화이해교육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 교·사대 등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예비교사 인력을 위해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강좌 개설, 현직교사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연수,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사업,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교재 및 자료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각종 시설종사자를 위한 교육도 추진함.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도 실시하기 시작함.

❖ 인천광역시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추진 개요

- 인천광역시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이 중에서 인천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영역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추진 사업은 대체로 비슷하며, 시를 비롯하여 각 군·구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어울림 프로그램과 행사, 재능나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2018년도에는 지속 사업 외에 다문화가족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미디어 환경 조성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등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촉진하고자 함.

III.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분석 결과

- 인천 시민 1,0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0.85점(표준편차 14.18)으로 나타남.
 - 3개의 하위차원별 지수 중에서는 다양성 차원 지수(62.21점)가 가장 높고, 관계성 차원 지수(59.06점)가 가장 낮으며, 하위구성요소별로는 ‘거부·회피 정서’ 지수(70.93점)가 가장 높고, ‘상호교류행동의지’ 지수(52.54점)가 가장 낮음.
 - 즉, 인천 시민들은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 혹은 이주민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하려는 성향은 상대적으로 적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의지는 가지고 있음에 비해 이들과 실천적으로 교류하려는 행동의지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 2017 인천 시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결과

차원	다양성 차원 : 62.21			관계성 차원 : 59.06			보편성 차원 : 60.79	
하위구성 요소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지수	55.07	56.58	69.51	56.67	70.93	52.54	55.99	64.64

-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용성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부·회피정서’, ‘고정관념 및 차별’,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의 장점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지체된 나머지 요소들의 수용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 제도 및 정책의 보완 등이 필요함.

- 다문화수용성지수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수용적인 경향성이 유의하게 드러남.
 - 거주지별로는 남구, 남동구, 서구(청라 외) 지역이 전체 평균지수(60.85점)보다 높았고,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층이 기혼층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수용성이 증가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정규직이 높은 수용성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낮은 수용성을 보임.
- 다문화수용성지수를 다문화 관련 경험 변수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목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경험이 있을수록, 주변에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있을수록, 다문화교육, 다문화 행사나 자원봉사, 다문화동호회 활동 등의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특히,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친구로 두는 것과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동호회 참여는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IV. 인천 시민의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인천 시민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혈통, 문화적 전통, 거주지보다는 한국인이라는 느낌, 한국정치제도와 법 존중, 국적, 한국어 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함.
 - ‘위기시 자국민 우선 고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지만 중립 의사가 가장 많음.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 난민에 대하여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더 많고, 외국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임.
 -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 해외 원조 등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높으나 난민 수용에는 부정적인 비율이 더 높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약해지는 경향을 보임.
 - 다문화 지향성은 높게 단일민족 지향성은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이주민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합법적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근로나 경제 기여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지만, 범죄율 상승과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음.

V.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다문화교육 강화

❖ 다문화이해교육에서 다문화 역량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확장

-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다문화이해교육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다문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으로 확장하여 다문화 역량을 갖춘 다문화 시민을 양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보다 확장된 다문화교육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반편견교육,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동등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교육, 다양한 사람들이 통합하여 함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평화교육, 사회적 소수자 및 타자에 대한 억압, 차별, 무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시민교육, 세계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호 공감과 교류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학생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성인 대상으로 확대

- 다문화교육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는데,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성인인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대상의 다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연령대가 높은 50, 60대 이상의 시민, 그리고 기혼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다문화교육 실행기관 확대 및 총괄기관 선정

- 다문화교육은 학교 위주로 관할하는 교육청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은 부족한 편이므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여성 관련 기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직장에서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함.
- 일반 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다문화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허브 기관이 필요함.

❖ 대상별 맞춤형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 다문화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교재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대상에게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부문을 보완하면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필요한 다문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교육 강사 인력풀의 다양화와 확대

-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강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문화이해 교육을 넘어 인권교육, 반편견 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이 확대되려면 그에 적절한 강사가 필요하므로 그 인력풀을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 확대

❖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다문화 행사

- ‘세계인의 날’ 행사를 선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외국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별로는 외국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특화된 다문화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및 지역 동호회 활성화 지원

- 외국이주민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외국이주민 동료와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 구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형성되는 동호회의 경우 거주 외국이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평생학습 동아리 참여 지원

- 외국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구성을 독려하여 이를 통해 서로 직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함.

❖ 마을공동체 형성 참여 지원

-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외국이주민도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이주민과 선주민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줌. 이를 통해 외국이주민에게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선주민에게는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 외국이주민과 선주민이 활동의 주체로서 함께 활동하는 봉사활동을 구성,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외국이주민과 선주민이 교류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다문화수용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모임 참여 지원

-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의 교류를 통해 일반 가정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홍보 강화

❖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강화

- 일반 시민들에게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구성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미래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다문화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천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게시

- 다문화사회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천 관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함.

4) 다문화수용성 정기적 조사에 기반한 정책수립

-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기반하여 미약한 부분을 보완, 강화할 수 있는 수용성 증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